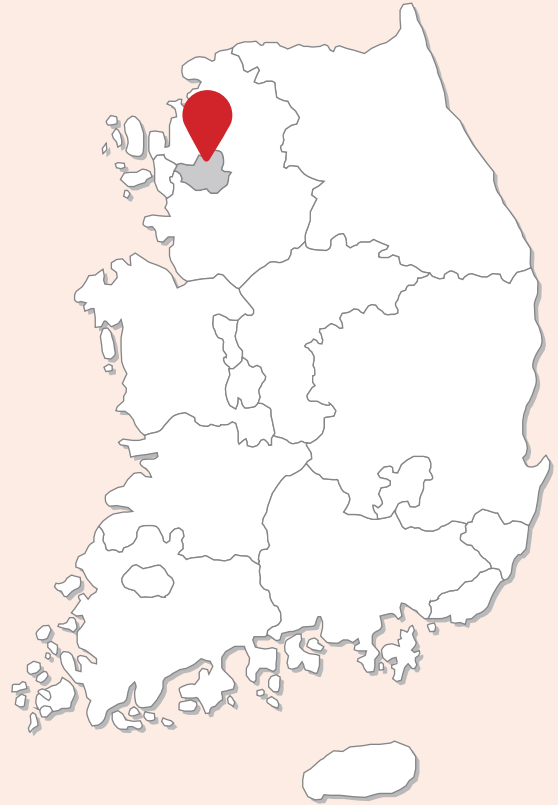


“수시 합격 사례, 아이도 스크랩해요”

거주	서울 노원구 중계동
구독 기간	6개월
자녀	중2, 고1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되었나요?

최근 아이가 자사고에 입학하면서 입시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우연히 서점에서 다양한 입시 자료를 살펴보던 중 〈내일교육〉이 눈에 띄었습니다. 깊이 있는 기사와 분석도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대입 주요 이슈, 수시 합격생 인터뷰, 시사 이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구독을 결심했죠. 실제로 접해보니 내용이 매우 알차고 유익해서 만족스러워요. 〈내일교육〉 덕분에 입시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매주 〈내일교육〉 기사를 빠짐없이 읽고 있어요. 특히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를 꼼꼼하게 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합격 사례들이

많거든요. 스크랩도 하고 메모도 해서 아이에게 공유하는데 요즘은 고등학생이 된 큰 아이가 수시 합격 사례에 저보다 더 관심을 보여 뿌듯해요. '이슈 콕콕' 기사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사 교양 관련 주제는 딱딱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어려운데 문체가 편안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세심하게 풀어줘서 유용해요.

특별히 다뤘으면 하는 분야가 있나요?

기사에 담긴 다양한 학생 사례를 보면서 실패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큰아이가 공부하면서 실수했던 경험이 둘째에게는 '꿀팁'이 돼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선배의 실수나 실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가 있으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

Reporter's A/S

선배들의 보다 진솔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내일교육>의 '공신칼럼'을 추천해 드려요. 고교 선택부터 내신 성적 관리, 진로 탐색, 대입까지 다채로운 실패와 도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교육> 홈페이지에서 '공신 칼럼'을 태그 검색하시면 지난 기사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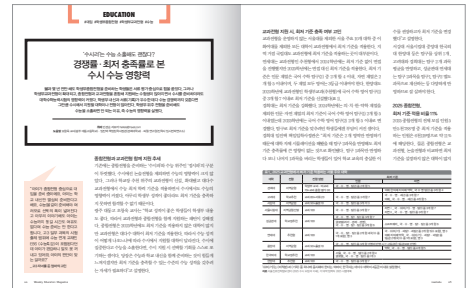


본지 1091호
'2023 공신들의
진로패널' 담
고입·수시 광탈에
반수... 잇단 실패,
통계학에 달다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췌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EDUCATION_ '수시'는 수능 소홀해도 괜찮다? 경쟁률·최저 충족률로 본 수시 수능 영향력

"고1이 된 아이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수시 인데요. 특히 종합전형에 준비하다 보니 자칫 수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수시 경쟁률, 대학별 최저 충족률과 함께 수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어요."



COLUMN_ 그림에도 학교 <가리는 손> 문학 수업 이야기

"강원 양양고 이재호 선생님의 칼럼이 인상적이었어요. 혐오의 세상을 바꾸려는 선생님의 진심이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입시에 매몰돼 놓치기 쉬운 학교 안 '교육'을 짚어주는 기사는 <내일교육>의 큰 장점이에요."